

# 현대모비스, 양궁 국가대표 꿈나무 키운다

초등학교 30명 초청해 어린이 양궁교실

현대모비스가 미래 양궁 꿈나무를 확대 육성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주말 경기도 용인 현대모비스 양궁장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30명을 초청해 어린이 양궁교실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 양궁교실은 현대모비스가 양궁인재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다. 특히 올해는 방과후 활동이 부족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로 대상을 확대했다. 건강한 체육활동을 바탕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현대모비스는 어린이 양궁교실을 확대 실시하고, 양궁을 생활체육으로 활성화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양궁을 쉽게 즐길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컴파운드 국가대표 소채원(왼쪽) 선수와 심예지(오른쪽) 선수가 초등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이날 행사는 현대모비스 여자양궁단 선수 전원이 참가해 재능기부 형식으로 이뤄졌다. 강채영 선수를 비롯해 컴파운드 종목 국가대표인 소채원 선수 등 선수단 8명도

두 참석해 참가한 초등학생들에게 활쏘는 방법을 직접 전수하며, 조별시합과 식사, 기념촬영 등을 실시했다.

/정영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SK 대학생 봉사단, 사회문제 해결 성과 공유

사회문제 해결로 활동 방향을 넓힌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가 상반기 성과를 공유했다.

행복나눔재단은 SUNNY가 '2019 상반기 종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10개 지역에서 22일과 23일 양일간 지역별로 동시 진행했다.

SUNNY는 워크숍에서 상반기 130개 사회변화 프로그램 활동을 마친 성과를 공유

했다. 대학생 1300여명이 모여 발표와 피드백을 이어갔으며, 후속 계획도 모색했다.

앞서 SUNNY는 올 들어 자원봉사를 벗어나 사회변화 활동으로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5대 사회상을 기준으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올해 SUNNY는 전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도 성공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난대피교육인 '세이프투게더'를 비롯

해 계모임 기반 마이크로 크레딧 플랫폼인 '너 이름이 MMoney'와 청년 우울과 노인 소외를 해결하는 '행복한 콜센터' 등이다.

행복나눔재단 서진석 SI사업그룹장은 "SUNNY 사회변화 프로그램은 문제 도출부터 해결방안 기획, 실행까지 모든 사회변화 과정을 청년 스스로 이끌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SUNNY는 청년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주목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사회변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 사기꾼과 바보 사이



기지 수첩

이 세 경  
(유통&라이프부)

'사기꾼이 되니 바보가 되겠다'는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사기는 명백한 범죄지만 무지(無知)는 죄가 아니다. 사람을 죽여도 모르고 그랬다면 과실치사가 되고, 일부러 죽였다면 살인이 된다. 고의성은 큰 차이를 만든다. 현행법상 과실치사는 금고 또는 벌금형에 그치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코오롱도 같은 셈법을 썼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몰랐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인보사를 만드는 코오롱티슈진은 그 사실을 알았어도 한국에서 인보사를 파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전혀 몰랐다. 만일 알았다면 국내 환자에게 3700건이 넘게 이루어진 시술이 모두 사기가 되기 때문이다. 인보사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재물손괴는 고의에 의한 것만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과실이라고 주장하면 민사상 책임을 질 뿐 형사

처벌은 피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한 바이오 기업 대표는 이렇게 표현했다. "신문에 버젓이 현대차 광고를 실어놓고, 삼성전자 광고인 줄 알았다고 우기는거나 마찬가지로"라고. 또 다른 대표는 "차라리 은폐가 낫다. 바이오 기업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게 얼마나 망신인가"라고도 했다.

하지만 코오롱은 바보가 되기로 했다. 사기꾼이 됐다면 나머지 피해자가 되겠지만, 스스로 바보가 되는 바람에 이를 허용한 보건당국도, 시술한 의료기관도, 700만원을 지불한 환자도, 나아가 첫 유전자치료제를 환영했던 바이오 산업 전체가 웃음거리가 되는 중이다.

곧 이윤열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제임 시절 인보사를 '네번째 자식'이라고 불렀다. 그는 넷째의 유전자가 바뀐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사기꾼이 될 것인가, 바보가 될 것인가. 이젠 그의 판단만 남았다.

/seile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6월 25일 (음 5월 23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터널 속처럼 답답하니 이상황을 잘 극복. 48년생 끝마무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60년생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 72년생 소중한 인연으로 커다란 물질적 이익을 본다. 84년생 험담을 들어도 내색하지 마라.
- 말**  42년생 아랫사람에게 한 격려는 큰 성과로 돌아온다. 54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66년생 망신 수가 있으니 인행을 조심. 78년생 작은 실수가 큰일을 만드니 다시 점검. 90년생 이성이 다가오니 인연이 아니다.
- 양**  37년생 가족과 다툼이 있으니 지는 게 이기는 것. 49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 알아서 판단. 61년생 결만 멀쩡한 일에 관심을 두지 마라. 73년생 일의 진행이 느려도 경거망동은 금물. 85년생 명예손상이 우려되니 말조심.
- 원숭이**  43년생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후회가 적다. 55년생 요행수를 바라다가 큰 손실 일으키 정도를 지켜라. 67년생 책임진 일이 쉽게 처리되나 성과는 늦게. 79년생 검은색 옷 입을 일이 생긴다. 91년생 소원성취는 시기상조인 듯.
- 토끼**  38년생 고집을 부리면 일하고도 고맙단 소리 못 듣는다. 50년생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62년생 남다른 아이디어로 주변의 부러움을 산다. 74년생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이 나서면 성공. 86년생 겸손함으로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
- 원숭이**  44년생 바쁘지만 하고 실속은 별로. 56년생 남의 말을 사흘을 가지 않으니 소문에 신경 쓰지 마라. 68년생 모든 일은 신용에서 비롯되니 작은 약속도 어기지 마라. 80년생 좋은 정보로 기쁜 일이 생긴다. 92년생 한발 물러서서 생각.
- 토끼**  39년생 비판하면 일이 더 어려워니 긍정적으로 생각. 51년생 권태롭다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낭패. 63년생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잡아라. 75년생 지혜는 부족하나 근면 성실로 승부. 87년생 공 없는 사람만 잔뜩 모여 시끄럽다.
- 닭**  45년생 사소한 인연도 소홀히 하지 마라. 57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69년생 상대의 실수를 덮어 주면 그 보답을 받는다. 81년생 의견통일이 우선. 93년생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니 선발물 시작하지 마라.
- 돼지**  40년생 우물을 찾았으나 두레박이 보이지 않으니 난감. 52년생 개미 소피와의 거래가 있을 때 주의. 64년생 변화가 있어도 앞만 보고 전진. 76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88년생 버틸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
- 개**  46년생 자식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니 마음이 흠뻑. 58년생 열정과 활기가 넘치는 하루. 70년생 때로는 내용보다 포장지 중요하다. 82년생 호감이 가는 여성이 유혹하니 중심을 잘 잡자. 94년생 무슨 일든 양보가 답일 것이다.
- 돼지**  41년생 과소비를 주의. 53년생 성공한 사람을 뒤따라 갈 줄 알아야 실수가 적다. 65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머지않아 내게로 돌아온다. 77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하지 마라. 89년생 본인에게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하라.
- 돼지**  47년생 설부터 결정으로 후회를 부를 듯. 59년생 남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뜻하지 않는 도움을 준다. 71년생 대장 질환의 위험성이 있는지 건강검진. 83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남는다. 95년생 상대에게 큰 기대는 금물.

# 김상희의四季

성실한 사람이 이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사바세계 대중을 위해 진리를 전파하고 다닐 때 이교도를 만나는 일이 많았다. 부처님이 싫었던 이교도들은 부처님을 만나면 악담을 퍼부었다. 어느 날 길에서 어떤 이교도가 부처님에게 흙을 손으로 긁어모아 집어 던졌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서 흙먼지는 이교도의 눈을 덮쳤고 얼굴을 뒤덮었다. 그 모양을 본 부처님이 일러주었다. "상대방에게 나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되요. 상대방이 당신의 악담과 악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 당신에게 고통을 줄 것이요." 이리 말씀하신 것은 불교의 가르침 중 하나인 인과응보와도 같다. 인과응보는 자기가 행한 선행과 악행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는 말이다. 상담을 오는 사람 중에는 직장인들이 많다. 신기하게도 직장인들이 토로하는 것 중의 하나는 어디에나 남을 짓밟고 술수를 쓰는 사람이 꼭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례를 술하게 보았는데 분명한 게 있다. 당장은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긴 시각으로 보면 결국은 그렇지 않다. 남을 괴롭히며 잘 나가는 사람은 실력이 아닌 술수의 힘일 뿐이다. 실력은 오래가지만 술수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길게 보면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앞서게 된다. 술수보다 능력과 성실이 더 좋은 무기인 것이다. 거기에 더해 남을 괴롭히는 악행은 인과응보의 결과로 자기에게 나쁜 상황을 불러온다. 쉽게 상처 입는 직장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가하는 악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상대방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이런 부처님 말씀을 하나쯤 가슴에 담고 살면 큰 힘이 된다. 그리고 그런 일로 가슴 아파하지 말아야 한다. 따뜻하고 성실한 당신이 분명히 이길 테니까.

'김상희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x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1	
	5	1						
	6		3				8	
		8		5	1			
				9		6	4	
9			6		3	5	7	
		5		2		8		
6			4					9

		9	4	5				1
					1		7	4
9		8				1		7
		2		8			6	
	4		6					5
2	5	4		9				
1					3	6	5	

스도쿠 정답

6	1	8	7	5	2	9	4	3
9	7	8	2	6	5	1	3	4
2	3	5	1	9	7	8	6	4
8	5	2	7	1	9	6	3	4
7	9	2	6	8	3	1	5	4
5	6	1	5	9	2	8	7	3
3	8	6	1	2	4	7	9	5
1	2	7	9	6	8	1	5	3
4	5	9	3	7	4	2	8	6

문제 제공= **보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22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331호